

인터뷰 **강영현 동문(경영대학 경영학과 12)**

“아름다운 청춘의 한 페이지가 되길”

학업과 가수 활동, 두 마리 토끼를 잡다
경영학 전공 수업, 데이식스 활동에 도움돼
"멈춰도, 주저 앓더라도 포기하지 않길"

우리대학 경영학과 12학번 출신 강영현 동문. 그는 2015년 JYP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밴드 DAY6(데이식스)로 데뷔해 Young K(영케이)로 활동 중이다. 실 틈 없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과 데이식스의 행보로 고공행진하면서 그의 이름 석자 앞에 ‘낮 경영 밤밴드’ 수식어가 따랐다. 그는 현재 보컬, 랩, 베이스 포지션 외에도 팀 내의 작사가로서 앨범 크레딧에 그의 이름이 빠짐없이 등장한다. 청춘들에게 항상 위로되는 가사와 음악을 선사해 주는 강영현 동문, 동대신문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동국대 경영학과 학부생에서 가수가 되기까지

어릴 적부터 음악과 친구로 지내던 강영현 동문. 무대 위에 올라 노래를 부르거나 한마음인 친구들과 팀을 꾸려 음악을 해왔지만, 뮤지션의 꿈만 품은 채 달려온 것만은 아니다. 연습생 시절 그는 불투명한 데뷔를 앞두고 본인이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다. 그의 긴 고민 끝에는 우리대학과의 인연이 있다. 그는 경영이라는 학문이 여러 업종에 접목된다고 생각해 이를 배우고자 경영학과 진학을 결심했다. 입학 후 연습생 시절의 강동문은 음악계에 종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 재학 중에도 가수 준비와 학교 생활을 병행했다. 그는 데이식스로 데뷔한 후에도 끝까지 학업과 가수 활동을 포기하지 않으며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힘썼다. 이에 강 동문은 “데이식스 활동은 당연히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학업과 가수 활동 병행이 힘들더라도 졸업을 목표로 끊임없이 전진했던 것 같다”며 묵묵히 달려왔던 학부 시절을 회상했다. 그는 “데뷔 이전 우리대학에서 공부했던 시간이 뜻깊기 때문에 그만두기 아쉬워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유종의미를 거두고자 했던 당시의 포부를 전했다.

불확실한 속 분명한 걸음

그는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취업의 길을 걸을 수도 있었으나 데뷔를 향한 길을 선택하며 ‘데이식스’로서 대중 앞에 등장하는 데 성공했다. 도전적인 선택을 다짐한 후 성공하기까지, 그의 준비 과정엔 불확실함도 뒤따랐다. 강 동문은 “세상에 불확실하지 않은 미래는 없는 것 같다”며 “어떠한 진로를 선택했든 확실한 길은 없을 것”이라 전했다. 그는 가수라는 직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덜 안정적인 일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절대적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우리 모두는

대단한 존재”라며 가수를 선택한 당시는 힘들었지만, 모두가 불확실한 선택 속에서 묵묵히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에 그 시절을 버틸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경영학에서 배운, ‘나에 대한 새로운 관점’

가수 활동과 학업의 병행이라는 바쁜 시간 속에서도 강 동문은 학교에서 소소한 기억과 배움을 가질 수 있었다. 그에게 재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를 묻자 우리대학의 ‘헐떡고개 오르기’를 올렸다.

“유독 피곤한 날 헐떡고개를 오를 때면 다시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그 마음을 이겨내며 학교로 한 발 한 발을 내딛었죠”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힘겨운 언덕을 넘어 도착한 강의실에서는 경영학 전공 수업이 그를 기다렸다. 강 동문은 경영학 수업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그는 “경영학 수업을 수강하면서 나 자신을 프로덕트(product)로 놓고 데이식스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있어야 할지 접근해 보는 관점을 가지게 됐다”며 힘든 시간에도 많은 것을 배우고 현재 가수 활동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음을 언급했다.

강 동문은 학창 시절 마케팅 수업을 가장 좋아했다. 과제를 하며 자신을 스스로 마케팅할 수 있던 점이 흥미로웠다고, 심지어 가수가 되지 않았으면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어 그는 후배들에게 ‘자아와 명상’ 수업을 추천했다. 비록 본인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힘든 수업이었지만 후배들은 피곤함을 이겨 명상 수업을 통해 자신을 정비하는 시간을 알차게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쉬어가는 시간이 주는 음악적 영감

강 동문의 작사는 데이식스의 곡에서만 써 내려간 것이 아니다. 그는 현재 저릿한 가사로 세상을 울린 걸 그룹 하이키의 곡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를 작사했다. 한계에 직면한 이들에게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갤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길 맡고 취해 웃을 때까지”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가사 중

을 받았다. 그러나 무수한 곡의 작사 경험이 있는 그에게도 고충이 있었다. 그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는 힘든 것 같고, 정답이 있는 부분도 아니기에 정말 어려운 분야인 것 같다”며 작사 과정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았다. 강 동문은 “작사를 하는 순간, 본인 취향이 어느새 반영되고 있어 그 노래를 들을 사람들을 고려하기 위해 더욱이 노력하는 편”이라며 작사 시 주의하는 부분에 대해 밝혔다. 또한 그는 작사 과정에서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쉬어 가는 데에 집중한다고 전했다. 기분과 생각을 전환한 후 다시 작사를 시작하면 또 다른 영감이 새롭게 떠올라 더 좋은 곡을 쓸 수 있게 된다고 자신만의 슬럼프 극복 방법을 말했다.

방향 속에서 포기하지 않기를

그의 노래에 많은 이들이 울고 웃었다. 그들은 아티스트 ‘영케이’의 위로에 더해 ‘강영현’의 모습에도 용기를 얻었다. 아이돌 최초 카투사 합격, 최우수 병사 선정 등 군 입대부터 군 복무 중 잇따르는 ‘강영현’의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다. 그런 그가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의욕을 잃어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방황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며 “가보지도 않은 길에서 확신만을 가지고 걸어갈 수는 없으니 용기를 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강 동문은 “물론 현재 여력이 없어 선택을 내리고 성과를 내야 하는 상태라면 방황하는 시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청년들의 불안함에 공감했다. 그러나 그는 막막한 현실을 헤매고 있는 청년들이 자책하지 않고, 방황하는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며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길로 나아간다는 생각으로 힘든 시간을 버텨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이 글을 읽는 많은 이들이 스스로에게 관찮다고 말해주고, 일어설 힘이 있을 때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북돋아 주길 바란다”며 “멈춰도, 주저 앓아도 되니까 포기하지만 않았으면 한다”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함께 전했다.

마지막으로 강 동문은 우리대학 학우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를 꼽았다. 이 곡의 추천과 함께 그는 우리대학 후배들이 매일을 아름답다 추억을 만들어 나가고, 그 추억들이 모여 청춘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영케이만의 음악과 가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강영현 동문. 우리대학 학우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늘 새롭고 감동적인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더욱 빛난다. 감동을 전하는 가수 영케이의 음악이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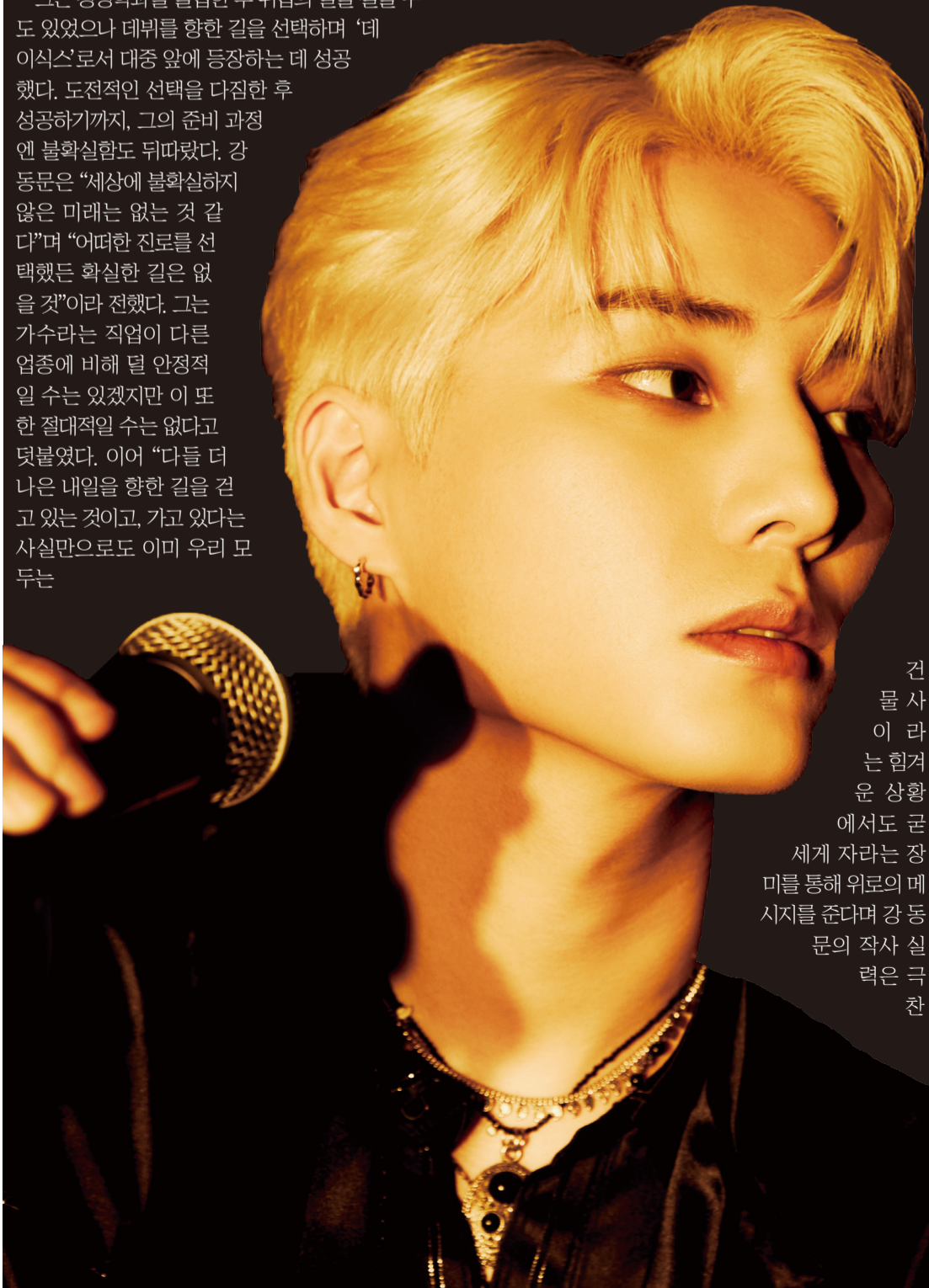
이민경 기자·최은서 수습기자 dgupress@dgu.edu

▲오른쪽 위부터 1, 2번

- ▲1. 우리대학 학교장바를 입은 강영현 동문 (사진출처 = JYP엔터테인먼트.)
- ▲2. 가수 Young K (사진제공 = JYP엔터테인먼트.)

강영현 동문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12학번)
- ▲2015년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밴드 DAY6로 데뷔
- ▲DAY6 내 베이스, 보컬, 랩, 작사 담당
- ▲2021년 개인 앨범 'Eternal' 발매



건물 사이에
이러한
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곧 세계를
자라는
장미를
통해 위로의
메시지를
준다며 강
동문의
작사 실력은
극찬